

우울척도에 의한 대학신입생의 정신건강 평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이종범 · 서혜수 · 정성덕

서 론

우울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신현상증의 하나로 인간역사와 더불어 인간이 경험해야 했던 정신적 고통증의 한 부분인데, 그 증상이 다양하여 우울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병으로 간과되거나 두드러진 우울증이더라도 임상적인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¹⁾

우울증이라 할 때에는 슬픈감정의 정도가 심하며 흥미와 의욕상실, 식욕 및 성욕감퇴 더 나아가서는 지나친 죄악감과 자살의도까지 생기게 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한다.²⁾ 이 증세는 정신과적인 장애들 중의 가장 흔한 것으로 모든 성인들은 그들의 일생을 통하여 어느 시점에서든 18~23% 정도는 우울증을 일정기간 경험한다고 한다.³⁾

우울증에 대해서 처음 기술한 사람은 Hippocrates로 이를 Melancholia라고 불렀다.⁴⁾ 그 후 많은 학자들이 우울증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여 왔으며 근세 Kraepelin⁵⁾은 각 임상증상에 따라 우울증을 분류했고 Bleuer⁶⁾은 모든 우울증에는 우울한 감정상태, 정신운동지연 및 의지의 억압 등이 3대 기본증상으로 된다고 하면서 melancholia와의 동의이로서 "depression"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우울증의 원인에 대한 연구로서 유전적인 요소, 생물학적인 요소 및 정신역동적 연구의 기초는 Freud⁷⁾와 Abraham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공격적 욕구 (aggressive striving) 및 양가감정(ambivalence) 죄의식의 개념에 그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있다. Bibring⁹⁾은 우울증이란 자존심의 저하, 자아의 무력한 상태 및 그 뒤에

오는 위축 (withdrawal)의 결과이지 자신에 대한 초자아 (superego)의 공격성은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Reichmann¹⁰⁾도 우울증이란 구강적(oral)이고 자기애적인(narcissistic) 고착상태이며, 자신이 버림받고 혼자 남았을 때의 내적 긴장과 공허감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반응으로 보았다. Weissman et. al¹¹⁾은 어떤 환자에게는 적개심과 우울증이 같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앞에서 말했듯이 유전적인 요소, 생물학적인 요소, 환경적인 스트레스 및 인격적인 요소 등이 있다고 보겠는데 이 중 주된 요인은 환경적인 요소와 인격적인 요소라고 본다.¹²⁾ 임상적 실례로서 환경적 스트레스로 되는 요인들로 자기가 관계했던 중요했던 환경의 상실, 박탈, 실망 등에 대한 반응으로 생긴 즉각적인 정서변화, 자기상에 대한 비판, 지나친 양심으로 인한 죄책감, 자아 이상이 높은 경우 자아기능의 변화, 공격적인 욕구에 대한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외적 자극에 우울증이 호발하기 쉬운 인격유형은 자기애적(narcissistic) 인격, 수동의 존적(passive-dependent) 인격 및 강박 충동적인(obsessive-compulsive) 인격 등의 특징을 가진 경우라고 본다.¹³⁾

한편 대학생활의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해 나가는 시기인 만큼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했을때 엄습해 오는 자아위기(identity crisis)의식과 소외감(isolation)을 극복해야 정상적으로 인격이 성숙되어 독립적인 한 개체로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성인이 된다.¹⁴⁾

이 시기는 원만히 경과하지 못한 경우 지나친 열등감이나 자존심의 저하로 우울증상이 동반하

* 본 논문의 요지는 1986년 제29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기 쉽다.

이에 저자들은 대학신입생들의 우울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들이 겪고있는 우울의 정도를 조기 파악하고 또 이를 사회 정신의학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우울이 어느정도 문제시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런 자료는 원만한 대학생활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수립에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986년 1월부터 1986년 2월까지 영남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본 대학 정신과학교실원들의 협조로 Zung이 고안한 자가평가 우울척도 (self-rating depression scale; 이하 SDS 혹은 우울척도로 약함) (부표참조)¹⁵⁾에 의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응답자 수는 5645명의 신입생 중 4834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85.6%에 해당했고 그 중 남학생은 총 4061명 중 86.2%인 3499명이었고 여학생은 총 1584명 중 84.3%인 1335명이었다(표 1).

연령별로는 17세 이하가 남학생이 15.2%, 여학생이 23.0%, 18세가 남학생이 47.1%, 여학생이

57.7%, 19세가 남학생이 24.2%, 여학생이 15.4%, 20세가 남학생이 8.5%, 여학생이 2.4%, 21세이상 남학생이 5.0%, 여학생이 1.6%이었다(표 2).

Table 2. Age distribution of respondents in the college freshmen by sex

Age	Male (N=3,490) Female (N=1,335)	
	No. of subjects(%)	No. of subjects(%)
-17	533(15.2)	307(23.0)
18	1649(47.1)	770(57.7)
19	845(24.2)	205(15.4)
20	297(8.5)	32(2.4)
21-	175(5.0)	21(1.6)

본 조사에서 사용한 우울척도는 20개의 다양한 우울증상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에서 4점까지 평가되어 최하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 측정되는 척도이다.

이는 이미 국내에서 번안되어 빈번히 사용되어 왔으며 그 신뢰도와 타당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16)~20)} 피검자가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평가하여 평가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한 상태로 간주된다.

특히 총점이 50점 이상일 경우에 이를 유의한 수준으로 삼았으며^{16,18)~22)} 이 점수 이상 획득한

Table 1. Distribution of respondents in the freshmen by college and sexes

College	No. of attended students			Respondents		
	Male	Female	Both	Male (%)	Female (%)	Both (%)
Liberal Arts	323	336	659	262(81.1)	287(85.4)	529(83.3)
Science	250	184	434	198(79.2)	161(87.5)	359(82.7)
Engineering	1,282	93	1,375	1,124(87.7)	82(88.2)	1,206(87.7)
Law & Political	249	14	263	233(93.6)	14(100)	247(93.9)
Commerce & Economics	473	16	489	441(93.2)	13(81.3)	454(92.8)
Medicine	67	17	84	26(38.8)	5(29.4)	31(36.9)
Pharmacy	19	55	74	15(78.9)	46(83.6)	61(82.4)
Agriculture	332	128	460	296(89.2)	109(85.2)	405(88.0)
Home Economics	2	195	197	2(100)	177(90.8)	179(90.9)
Education	111	205	316	96(86.5)	186(90.7)	282(89.2)
Fine Arts	80	83	163	66(82.5)	65(78.3)	131(80.4)
Musics	39	150	189	33(84.6)	105(70.0)	138(73.0)
Evening Programs	834	108	942	707(84.8)	85(78.7)	792(84.1)
Total	4,061	1,584	5,645	3,499(86.2)	1,335(84.3)	4,834(85.6)

고득점자를 백분율로 평가하여 비교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기서 사용된 우울척도의 항목과 앞에서 논한 불안척도의 항목간의 성적을 비교하여 양쪽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상호 검토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하여 필요에 따라 변량분석(ANOVA) 및 t 검증을 시행하였다.

성 적

우울척도로 평가된 신입생의 총점 및 항목별 성적은 표 3과 같다. 남학생의 평균총점은 35.68+7.46이었고, 여학생은 38.93+7.26으로 여학생이 다소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항목별 성적은 남학생에서 높이 평가한 항목은 상위로부터 우유부단(indecisiveness), 정신운동지연(psychomotor re-

tardation), 혼동(confusion), 성욕감퇴(decreased libido) 및 하루중 감정변동(diurnal variation) 등이었고 여학생에서는 상위로부터 성욕감퇴(decreased libido), 혼동(confusion), 우유부단(indecisiveness), 정신운동지연(psychomotor retardation) 및 하루중 감정변동(diurnal variation) 등으로 순서는 다르나 상위항목들의 내용은 남녀 모두 동일했다. 남학생이 평가한 하위수준의 항목은 자살의도(suicidal rumination), 정신운동흥분(psychomotor agitation), 변비(constipation), 우울적 감정(depressed affect) 등으로 변비와 체중감소를 제외하고 순서만 다를 뿐 항목의 내용은 남녀 모두 동일했다. 신입생이 평가한 우울성적 분포는 표 4 와 같다. 즉 5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남학생 161명(4.6%), 여학생 117명(8.8%)로 여대생이 높은 고득점율을 보였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cores of 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 in male and female college freshmen

Items of SDS	Male(N=3499) M±SD	Female(N=1355) M±SD
1. Depressed affect	1.34±0.56	1.48±0.61***
2. Diurnal variation	2.38±1.07	2.60±1.08***
3. Crying spells	1.37±0.60	1.82±0.74***
4. Sleep disturbance	1.48±0.74	1.48±0.72
5. Decreased appetite	2.04±1.16	2.32±1.21***
6. Decreased libido	2.45±0.93	3.14±0.70***
7. Weight loss	1.53±0.84***	1.35±0.64
8. Constipation	1.23±0.56	1.54±0.83***
9. Tachycardia	1.35±0.59	1.40±0.60***
10. Fatigue	1.45±0.67	1.59±0.71***
11. Confusion	2.55±1.00	2.85±0.97***
12. Psychomotor retardation	2.55±1.03	2.68±1.02***
13. Psychomotor agitation	1.19±0.48	1.18±0.44
14. Hopelessness	1.85±0.94	1.85±0.92
15. Irritability	1.36±0.64	1.48±0.69***
16. Indecisiveness	2.64±1.01	2.84±0.90***
17. Personal devaluation	1.94±0.93	2.14±0.93***
18. Emptiness	2.01±1.00	2.18±0.96***
19. Suicidal rumination	1.12±0.42	1.10±0.34
20. Dissatisfaction	1.85±0.97	1.93±0.98***
Mean Total	35.68±7.46	38.93±7.26***

SD : Standard deviation, * P < 0.05, ** P < 0.01, *** P < 0.001

M : Mean

Table 4. Total score distribution of 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in male and female college freshmen

Total Score	Male (N=3499) No. (%)	Female (N=1335) No. (%)
20 - 29	766(21.9)	129(9.7)
30 - 39	1757(50.2)	619(46.4)
40 - 49	815(23.3)	480(36)
50 - 59	152(4.3)	113(8.5)
60 - 69	9(0.3)	4(0.3)
70 - 80	0	0
over 50	161(4.6)	117(8.8)

다. 사회 정신의학적 요인과 우울성적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먼저 대학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Home Economics(경제과)가 평균총점이 40.0으로 유의한 정도로 높았으나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는 없다고 본다($P < 0.01$). 여학생의 경우 Liberal arts(교양과정부)가 평균총점이 40.1로서 유의한 정도로 높았다($P < 0.01$). 가정환경에 대한 만족도, 소속대학 선택에 따른 만족도, 소속학과에 따른 만족도, 부모에 대한 친숙도에 따른 만족도의 성적은 불만인 경우에 남녀모두 유의하게 높은 우울점수($P < 0.001$) 및 고득점율을 보였으며, 과거·현재·미래의 자아상에 대하여 비관적인 경우에도 남녀모두 유의하게 높은 우울성적($P < 0.001$) 및 고득점율을 보였다. 성장지, 출신고등학교 소재지, 현거주지, 종교, 학비부담 등 월잡비에 따른 우울성적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Mean scores of 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in the college freshmen by psychosocial factors and sexes

Factors	Male(N=3,499)			Female(N=1,335)		
	No. of subjects (%)	Mean score	No. of subjects score 50 & over (%)	No. of subjects (%)	Mean score	No. of subjects score 50 & over (%)
College						
Liberal arts	262(7.5)	37.7	19(7.3)	287(21.5)	40.1	32(11.2)
Science	198(5.7)	35.2	7(3.5)	161(12.1)	39.3	18(11.2)
Engineering	1,124(32.1)	35.5	45(4.0)	82(6.1)	38.3	8(9.8)
Law and Political Science	233(6.7)	36.0	14(6.0)	14(1.1)	37.1	1(7.1)
Commerce and Economics	441(12.6)	35.8	20(4.5)	13(1.0)	35.2	0(0.0)
Medicine	26(0.7)	33.0	0(0.0)	5(0.4)	34.4	0(0.0)
Pharmacy	15(0.4)	36.3	3(20.0)	46(3.5)	38.8	3(6.5)
Agriculture and Animal Science	296(8.5)	36.1	14(4.7)	109(8.2)	37.6	7(4.0)
Home Economics	2(0.1)	40.0	0(0.0)	177(13.3)	38.6	7(4.0)
Education	96(2.7)	34.5	2(2.1)	186(13.9)	38.9	14(7.5)
Fine Arts	66(1.9)	35.4	1(1.5)	65(4.9)	36.3	3(4.6)
Music	33(0.9)	35.9	3(9.1)	105(7.9)	39.8	13(12.4)
Evening Programs	707(20.2)	35.2	33(4.7)	85(6.4)	39.6	10(11.8)
Home atmosphere						
Dissatisfied	59(1.7)	41.8	13(22.0)	12(0.9)	49.3	7(58.3)
Mediate	1,507(43.1)	37.7	94(6.2)	475(35.6)	41.8	69(14.5)
Satisfied	1,933(55.2)	33.9	54(2.8)	848(63.5)	37.2	41(4.8)
Maturation location						
Myun	839(24.0)	35.6	32(3.8)	170(12.7)	39.2	13(7.7)
Up	379(10.8)	35.6	17(4.5)	120(9.0)	38.9	11(9.2)

City	525(15.0)	36.3	29(5.5)	243(18.2)	38.8	22(9.1)
Large city	1,756(50.2)	35.5	83(4.7)	802(60.1)	38.9	71(8.9)
Location of high school from which graduated						
Myun	116(3.3)	34.8	5(4.3)	20(1.5)	39.9	2(10.0)
Up	157(4.5)	35.9	3(1.9)	67(5.0)	38.8	4(6.0)
City	638(18.2)	35.7	28(4.4)	246(18.4)	38.9	18(7.3)
Large city	2,588(74.0)	35.7	125(4.8)	1,002(75.1)	38.9	93(9.3)
Residence						
Own house	2,901(82.9)	35.6	131(4.5)	1,218(91.2)	39.0	108(8.9)
Relatives & boarding	181(5.2)	35.7	5(2.8)	26(2.0)	37.3	3(11.5)
Self-cooking	358(10.2)	35.9	21(5.9)	85(6.4)	39.1	6(7.1)
Dormitory	22(0.6)	35.8	3(13.6)	1(0.1)	37.0	0(0.0)
Others	37(1.1)	37.2	1(2.7)	5(0.4)	38.6	0(0.0)
Religion						
Protestant	664(19.0)	35.6	35(5.3)	335(25.1)	38.9	39(11.6)
Catholic	237(6.8)	35.1	7(3.0)	141(10.6)	39.0	13(9.2)
Buddist	786(22.5)	35.5	34(4.3)	251(18.8)	38.4	20(8.0)
Others	17(0.5)	34.3	2(11.8)	3(0.2)	35.7	0(0.0)
None	1,795(51.3)	35.9	83(4.6)	605(45.3)	39.2	45(7.4)
Satisfaction with college						
Dissatisfied	125(3.6)	41.5	24(19.2)	23(1.7)	42.0	4(17.4)
Mediate	2,277(65.1)	36.5	114(5.0)	826(61.9)	39.9	89(10.8)
Satisfied	1,097(31.4)	33.4	23(2.1)	486(36.4)	37.1	24(4.9)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Dissatisfied	80(2.5)	42.8	19(22.1)	31(2.3)	45.0	9(29.0)
Mediate	1,165(33.3)	37.2	73(6.3)	434(32.5)	40.4	47(10.8)
Satisfied	2,248(64.3)	34.6	69(3.1)	870(65.2)	38.0	61(7.0)
Past self-image						
Pessimistic	323(9.2)	39.6	34(10.5)	45(3.4)	44.7	11(24.4)
Uncertain	2,423(69.3)	35.7	97(4.0)	905(67.8)	39.1	82(9.1)
Optimistic	753(21.5)	33.8	30(4.0)	385(28.8)	37.9	24(6.2)
Present self-image						
Pessimistic	139(4.0)	43.1	33(23.7)	25(1.9)	48.9	13(52.0)
Uncertain	2,581(73.8)	36.1	105(4.1)	1,000(74.9)	39.6	93(9.3)
Optimistic	779(22.3)	32.9	23(3.0)	310(23.2)	36.1	11(3.6)
Future self-image						
Pessimistic	41(1.2)	44.5	18(43.9)	9(0.7)	52.3	7(77.9)
Uncertain	1,446(41.3)	37.6	93(6.4)	622((46.6)	40.5	79(12.7)
Optimistic	2,012(57.5)	34.1	50(2.5)	704(52.7)	37.4	31(4.4)
Educational fee from						

Parents	3,236(92.5)	35.6	140(4.3)	1,260(94.4)	39.0	111(8.8)
Brothers & sisters	115(3.3)	36.0	7(6.1)	23(1.7)	37.8	0(0.0)
Scholarship fund	66(1.9)	36.5	8(12.1)	32(2.4)	37.8	3(9.4)
Self	82(2.3)	36.3	6(7.3)	20(1.5)	40.4	3(15.0)
Spending money per month(won)						
Under 10,000	672(19.2)	35.7	30(4.5)	212(15.9)	38.5	18(8.5)
10,000-29,000	1,889(54.0)	35.8	75(4.0)	822(61.6)	38.8	68(8.3)
30,000-49,000	727(20.8)	35.5	39(5.4)	241(18.1)	39	25(10.4)
50,000-69,000	145(4.1)	34.7	6(4.1)	44(3.3)	39.8	2(4.6)
70,000-90,000	37(1.1)	35.1	3(8.1)	12(0.9)	40.8	3(25.0)
Over 100,000	29(0.3)	38.7	8(27.6)	4(0.3)	37.5	1(25.0)
Familiarity of parents						
Dissatisfied	75(2.1)	42.8	17(22.7)	13(1.0)	48.8	8(61.5)
Mediate	1,217(34.8)	37.8	82(6.7)	415(31.1)	41.5	64(15.4)
Satisfied	2,207(63.1)	34.2	62(2.8)	907(67.9)	37.6	45(5.0)

* : P < 0.05

** : P < 0.01

*** : P < 0.001

고찰

본 조사 결과에서 남녀 신입생의 평균총점이 남학생이 35.68 ± 7.46 이었고 여학생은 38.93 ± 7.26 으로 여학생이 다소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또 우울의 총점이 50점 이상인 고득점자는 남학생이 161명(4.6%), 여학생이 117명(8.8%)으로 여학생에서 고득점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거주 산업근로자²³⁾(남자근로자 : 16.5%, 여자근로자 : 26.1%),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남자노인 : 33.7%, 여자노인 : 56.5%)¹⁹⁾ 및 재학생의 결과(남대생 : 18.2%, 여대생 : 33.1%)²⁰⁾보다 월등히 낮았다. 그리고 이는 일반인의 우울신경증 발병율²⁴⁾보다도 낮았다. 이는 이²⁰⁾ 등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남자 : $46.24 + 8.66$, 여자 : $45.67 + 8.24$)보다 총점에서 낮았고, 구미시 산업근로자(남자근로자 : $41.16 + 8.82$, 여자근로자 : $44.71 + 8.24$)²³⁾ 및 여성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¹⁸⁾(여성근로자 : $43.82 + 8.02$, 여자대학생 : $42.80 + 8.79$)보다 역시 낮았으며 남녀별 비교에서는 여대생이 더 우울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Weissmann과 Klerman¹¹⁾은 우울증이 여자에게서 더 빈번한 것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인위적인 결과이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유전적, 내분비적, 사회심리학적, 정신분석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나에 관해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여성으로서의 유전적, 내분비적, 생물학적 취약성 및 사회심리적 요인 특히 여성의 사회지위와 특유의 배워진 정신적 무력감(female learned helplessness)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은 우울의 유병율을 갖고있다고 하였다. Uhlenhuth²⁵⁾와 Paykel²⁶⁾ 등의 보고를 보면 stress와 증상의 강도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있으나 여자가 더 많은 괴로운 생활사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을것이나에 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Hinkle²⁷⁾ 등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질환을 가지고 병원을 더 자주 방문하며,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더 빈번히 떠나는 일이 많다고 보고하며 그런것과의 관계도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또 일반적으로 여성은 기본생물학적인 요구인 본능이나 사회적인 욕구를 인습이나 도덕기준에서 남성보다 더 억제해야하며, 정신성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금기와 사회적인 제한이 가해진다. 이러한 억제된 욕구에 대한 불만을 충족시키자면 이를 다른 것으로 대처하거나 합리화 해야하며 때로는 더 강하게 억압하거나 승화와 같은 정신방어기능을 더 강화해야된다. 또 결혼 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라는 새로운 책임을 가중시켜 준다는 전제가 가미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신경증을 더 많이 겪게 된다고 하는점

은²⁸⁾ 본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보겠다.

신입생의 우울성적이 위의 비교에서 더 적게 나온것과 또 고득점율이 다른 연구결과보다 적은것은 고교시절을 지내면서 불안 우울을 견디지 못한 학생은 휴학 탈락하였으며 견디 낸 사람만이 대학입시시험에 응시하였고 대부분 성취욕에 차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다른 연구대상자보다 건강했을것으로 생각되며 대학생활을 해 나가며 자기의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생기기 시작하여 우울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요인분석은 앞으로 더 나아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울의 항목별 성적에서 남녀 신입생이 많이 호소한 증상은 우유부단, 정신운동지연, 혼동, 성욕감퇴, 하루 중 감정변동 등이있으며 순서만 다를 뿐 항목은 같았다. 낮은 성적을 보면 하위 항목에서도 남녀신입생들은 순서만 다를 뿐 동일 항목이었는데 이는 한편 상·하위 항목이 양군에서 동일하다는 것은 이²⁹⁾ 등이 조사한 재학생의 우울증상이 일반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또 여자 신입생에서 남자에 비해 우울의 항목별 성적이 높고 증상이 다양했는데 이는 여자에서 남자에 비해 더 많은 증상을 호소했다는 민²⁹⁾ 등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보겠다.

다음 이와같은 우울성적과 사회정신의학적인 요인과의 관계에서 여학생의 경우 Liberal arts (교양과정부)가 더 유의한 정도로 우울성적이 높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가정, 소속대학, 소속학과 및 부모와의 친숙도에 대해서 불만인 경우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자아상이 비판적인 경우에서 유의한 정도로 우울성적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재학생의 결과²⁹⁾와도 일치한다. 이는 자아주체성의 확립이 미흡하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때 이로 인한 자아위기(identity crisis)의 식과 소외감(isolation)을 잘

극복하지 못하므로 그 결과 가족 및 사회적인 압박이 가해지다 보면 개인적인 억압이나 갈등이 더 심해져서 현실을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능력의 역부족으로 인한 좌절 및 자존심의 상실 때문에 우울이 높은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건강한 정신생활을 하는데 긍정적인 태도에서 자아가치관을 확립하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통해 더욱 적절하게 연마되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평가와 더불어 불안척도와 우울척도의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는 과민성, 피로, 빈맥 등의 우울항목과 불안, 피로, 심계항진 등의 불안척도 항목들이 상관계수 0.40이상으로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이는 Zung의 불안척도와 우울척도로 조사할때 불안척도의 성적이 증가하는 항목에 대응하여 몇가지 우울척도의 항목의 성적도 증가하였으며 역도 성립된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불안과 우울의 상관관계¹⁶⁾,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안 우울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²⁰⁾와도 비슷한데 이런 점을 불안과 우울이 함께 공존한다고 한 바^{30,31)}를 뒷받침 해 주는 근거라 하겠다.

Woodward³²⁾등은 정신과 외래환자에서 우울신경증 환자는 대부분 불안증상이 혼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 증후군의 치료를 위하여 약물요법의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Prusoff와 Klermann³³⁾은 364명의 불안신경증 환자 36명의 우울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35%(25~40%)의 환자에서 판별이 불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Beck³⁴⁾과 Zung³⁵⁾은 우울증척도의 구성에서 불안과 우울의 증상이 혼재하여 있고 우울신경증 진단기준 역시 불안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는 불안과 우울을 Zung의 척도를 사용하여 동시에 측정할 경우 불안척도와 우울척도의 40개 항목을 어떤 축소된

Table 6. Correlation between SAS and SDS in 4,834 responded college freshmen.

Anxiety	and	depression	0.69
anxiousness	VS.	Lrritability	0.54
Fatioue	VS.	Fatigue	0.52
Palpitation	VS.	Tachycardia	0.51
Body aches & pains	VS.	Fatigue	0.36
Appelhension	VS.	Hopellessness	0.35

형태로 재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점⁶⁾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바이다.

요 약

영남대학교 신입생 4834명(남학생 : 3499명, 여학생 : 1335)을 대상으로 1986년 1월부터 1986년 2월까지 Zung의 자가평가 우울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울성적의 평균총점은 남학생이 35.68 ± 7.46 이었고 여학생은 38.93 ± 7.26 으로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였다($P < 0.001$). 우울의 항목별 성적은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우유부단, 정신운동지연, 혼동, 성욕감퇴, 하루 중 감정변동 등의 성적이 높았고 자살의도, 정신운동흥분, 우울감, 빈맥 등의 성적이 낮았다.

우울성적의 분포는 5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남학생이 161명(4.6%), 여학생이 117명(8.8%)로 여학생에서 높은율을 보였다.

우울성적과 관련된 사회정신학적 요인들 중 남녀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은 가정환경, 소속대학 선택과 현 소속학과에 대한 불만족(각각 $p < 0.001$, $p < 0.001$, $p < 0.001$) 및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경우(각각 $p < 0.001$, $p < 0.001$, $p < 0.001$)와 부모에 대한 친숙도에 대해서 불만인 경우($P < 0.001$)에서 유의하게 높은 우울성적을 보였다. 여학생에서 소속학과가 Liberal arts인 경우 유의하게 높은 우울점수($P < 0.01$)를 보였다. 과민성, 피로, 빈맥 등의 우울척도항목과 불안, 피로, 심계항진 등의 불안척도항목들이 상관계수 0.40이상으로 서로 상관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1. Freedman, A.M., Kaplan, H.I., and Sadock, B.J. : Diagonosis and psychiatric symptoms of psychiatric disorders, in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2nd Ed., Williams and Wilkins Co., Baltimore, 1975, pp. 811-812.
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Diagnosis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I), 3rd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C., 1980, p. 213.
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Diagnosis

-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I), 3rd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C., 1980, p. 217.
4. Zilboorg, G. : A history of medical psychology, W.W.Norton Co., New York, 1941.
5. Kraepelin, E. : Clinical Psychiatry, Abstracted and adapted from "Lehrbuch der psychiatrie", 7th Ed., Trans. by Diefendorf, A.R., The Mac-Millan Co., N.Y., 1912.
6. Bleuer, E. : Texbook of Psychiatry, Trans. by Brill, A.A., The Mac-Millan Co., N.Y., 1930.
7. Freud, S. : Mourning and melancholia(1916), in Collected Papers, Vol 4, Hogarth Press, London, 1957.
8. Abraham, K. : Note on the psychoanalytical investigation and treatment of manic depressive insanity and allied conditions(1911), in Jones, E., Ed. : Selected papers on psychoanalysis, Hogarth Press, London, 1949, pp. 137-156.
9. Bibring, E. : The mechanism of depression, in Greenacte, P., Ed. : Affective disorders,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Inc., 1953.
10. Cohen, M.B., Baker, G., Cohen, R.A., Reichmann, F. and Weiger, E.V. : An intensive study of 12 cases of manic-depressive psychosis, Am. J. Psychiatry, 17 : 103-137, 1954.
11. Weissman, M.M., and Klerman, G.L. : Sex differences and the epidemiology of depression, Arch. Gen. Psychiat., 34 : 61-74, 1977.
12. Sederer, L.I. : Inpatient Psychiatry, Diagnosis and Treatment. 2nd Ed., Williams and Wilkins, Bultimore, Waverly Press, 1986, pp. 9-13.
13. Kolb, L.C., and Brodie, H.K. :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W.B.Sounders Co., Philadelphia, 1982, pp. 482-483.
14. Erikson, E.H. :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Y., W.W. Norton, 1963, pp. 255-258.
15. Zung, W.W.K. :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 Gen. Psychiat., 12 : 63-70, 19

- 65.
16. 이종범, 정성덕 : 노인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4(3) : 431-444, 1985.
17. 양재근 : 정신과 환자의 자가평가 우울척도에 관한 조사, *신경정신의학*, 21(2) : 217-227, 1982.
18. 정성덕 : 여성근로자와 여대생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조사, *신경정신의학*, 22(2) : 265-274, 1983.
19. 이종범, 서혜수, 정성덕 : 노인의 우울에 관한 조사, *한국 노년학*, 44-52, 1984.
20. 이종범, 박병탁, 정성덕 : 우울척도에 의한 대학생의 정신건강 평가, *영남의대 학술지*, 2(1) : 123-133, 1985.
21. Keeler, M.H., Taylor, C.I. and Miller, W.C. : Are all recently detoxified alcoholics depressed?, *Am. J. Psychiatry*, 136 : 586-588, 1979.
22. 전명숙, 김용식 : 정신분열증 환자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0(1) : 84-93, 1981.
23. 박종환, 정종학, 김정환 : 산업장 근로자의 정신건강도 측정, *최신의학*, 24(10) : 98-104, 1981.
2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III), 3rd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C., 1980, p. 217.
25. Uhlenhuth, E.H., and Paykel, E.S. : Symptom intensity and life events, *Arch. Gen. Psychiat.*, 28 : 473, 1983.
26. Uhlenhuth, E.H., and Paykel, E.S. : Symptom configuration and life events, *Arch. Gen. Psychiat.*, 28 : 744-748, 1973.
27. Hinkle, L.E., : II. An expla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symptoms, disability and serious illness in two homogenous groups of men and women, *J. Public Health*, 50 : 1327-1336, 1960.
28. Kolb, L.C., and Brodie, H.K. :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W.B. Saunders Co., Philadelphia, 1982, p. 467.
29. 민성길, 김경희 : 우울증에서 보는 신체증상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7(2) : 149-154, 1978.
30. Stoeckle, J.D., and Davison, G.E. : Bodily complaints and other symptoms of depressive reaction, *J.A.M.A.*, 180 : 134-139, 1962.
31. 정학송 : 우울증환자의 신체증상, *신경정신의학*, 16(4) : 358-365, 1977.
32. Woodward, J.A., Henry, B.W. and Overall, J. E. : Pattern of symptom change in anxious depressed outpatients treated with different drugs, *Dis. Nerv. Syst.*, 36 : 125-129, 1975.
33. Prusoff, B. and Klerman, C.I. : Differentiating depressed from anxious neurotic outpatients, *Arch. Gen. Psychiat.*, 30 : 302-309, 1974.
34. Beck, A.T. :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 Gen. Psychiat.* 4 : 561-571, 1981.
35. Zung, W.W.K. and Durham, N.C. : From art to science, *Arch. Gen. Psychiat.* 29 : 328-337, 1973.

- Abstract -

A Study on Depression in College Freshmen

Jong Bum Lee, Hye Soo Suh, and Seung Douk Cheung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Korea*

The authors studied depression using 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 in the subjects of 3,499 male and 1,335 female college freshmen of Yeungnam University.

The authors collected the reports of SDS during the periods from January to February, 1986, and applied ANOVA and t-test on depression scores in order to compare them between various psychosocial factors, and sex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averages of total depression scor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 male students scored 35.68 ± 7.46 , female students scored 38.93 ± 7.26 ($P < 0.001$).

The depression scores relating to the items of indecisiveness, psychomotor retardation, decreased libido, and diurnal variation were relatively higher in both groups.

One hundred and sixty-one male students(4.6%) showed seriously high degree depression scores of 50 or higher, while one-hundred and seventeen female students(8.8%) showed the same scores.

Female students attending in liberal arts showed higher level of depression scores($P < 0.01$).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ward higher depression scores in the student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home atmosphere, colleges, department and familiarity of parents, and those who had pessimistic views of self image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in both groups($P < 0.001$).